<h1>나 혼자만 레벨업-29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s5a4b1b360e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29화</p>  
<p>고통에 몸부림치는 건 쉬운 일이지만, 그렇게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.</p>  
<p>정신을 잃으면 끝이다.</p>  
<p>'...178, 179, 180!'</p>  
<p>처음부터 3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진우가 마침내 숨겨 뒀던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.</p>  
<p>'보상 1 수락!'</p>  
<p>일부러 받지 않고 아껴 두었던 일일 퀘스트 보상 1번을 수락했다.</p>  
<p>[보상 1. 상태 회복이 적용됩니다.]</p>  
<p>슈우욱!</p>  
<p>온몸에 푸른빛이 감돌며 그 즉시 체력이 회복됐다.</p>  
<p>[체력: 3,602/3,602]</p>  
<p>다친 팔도 정상으로 돌아왔다.</p>  
<p>'지금이 기회다!'</p>  
<p>진우의 눈이 번뜩였다.</p>  
<p>이렇게 밀착해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민첩한 놈이라도 피하지 못하리라. 진우는 잽싸게 왼팔을 켈베로스의 목에 두르고, '카사카의 독니'로 켈베로스의 목 가운데를 찔렀다.</p>  
<p>푹! 푹! 푹!</p>  
<p>분노 상태가 풀렸는지 켈베로스가 진우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했다.</p>  
<p>"깨개갱! 깨갱! 캥! 캥!"</p>  
<p>하지만 진우는 강한 팔심으로 놈을 놓지 않았다.</p>  
<p>켈베로스가 발버둥 칠수록 더 강하게 목을 조였다.</p>  
<p>그동안에도 단검은 켈베로스의 목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다.</p>  
<p>푹, 푹, 푹!</p>  
<p>"캐개갱, 캥! 끼잉! 끼이이잉!"</p>  
<p>켈베로스가 마지막 발악으로 진우를 물어 댔으나 이미 승기는 기운 뒤였다.</p>  
<p>푹! 푹!</p>  
<p>"깨갱! 깽!"</p>  
<p>카사카의 독니는 켈베로스의 목을 지나쳐 놈의 가슴까지 내려갔다.</p>  
<p>푹! 푹! 푹!</p>  
<p>켈베로스의 저항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.</p>  
<p>"끼잉..."</p>  
<p>결국 켈베로스의 고개가 옆으로 젖혀졌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[지옥의 수문장 켈베로스를 처치했습니다.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순식간에 레벨이 네 개나 올랐다.</p>  
<p>그 정도로 힘든 싸움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켈베로스의 사지가 축 늘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놈의 목을 놓아주었다.</p>  
<p>켈베로스의 몸뚱이가 힘없이 바닥에 널브러졌다.</p>  
<p>철퍼덕.</p>  
<p>진우는 양 무릎을 짚었다.</p>  
<p>"하아."</p>  
<p>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토해 냈다.</p>  
<p>스킬을 쓸 수 있는 몬스터라니.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을 터였다.</p>  
<p>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했다.</p>  
<p>'참... 아이템.'</p>  
<p>애를 먹인 만큼 수확이 있을까?</p>  
<p>한숨 돌린 진우가 켈베로스에게 손을 뻗었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[아이템: 파수꾼의 목걸이]를 발견했습니다. 획득하시겠습니까?</p>  
<p>[아이템: 성문의 열쇠]를 발견했습니다. 획득하시겠습니까?</p>  
<p>[아이템: 켈베로스의 어금니]를 발견했습니다. 획득하시 겠습니까?</p>  
<p>'모두 획득.'</p>  
<p>바닥에 켈베로스 목에 채워져 있던 강철 목걸이 하나와 잿빛 열쇠, 짐승의 어금니 세 개가 나타났다.</p>  
<p>[아이템: 파수꾼의 목걸이]</p>  
<p>입수 난이도: A</p>  
<p>종류: 목걸이</p>  
<p>민첩 +20, 감각 +20</p>  
<p>[아이템: 성문의 열쇠]</p>  
<p>입수 난이도: A</p>  
<p>종류: 열쇠</p>  
<p>악마성의 성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. 문지기를 죽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.</p>  
<p>[아이템: 켈베로스의 어금니]</p>  
<p>입수 난이도: 없음</p>  
<p>종류: 잡동사니</p>  
<p>"오."</p>  
<p>진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.</p>  
<p>'민첩과 감각 스탯을 20포인트나 증가시켜 준다고?'</p>  
<p>옵션이 눈 돌아가게 좋은 목걸이가 나왔다.</p>  
<p>입수 난이도도 A등급이었다.</p>  
<p>그동안 봤던 아이템 중 입수 난이도가 가장 높았다.</p>  
<p>'하긴 그 고생을 해서 잡았는데...'</p>  
<p>입수 난이도가 낮을 리가 있나.</p>  
<p>그런데 막상 목걸이를 목에 차자니 망설여졌다.</p>  
<p>동그란 금속성 띠에 듬성듬성 가시가 박힌 외양이 어딜 봐도 완전한 개목걸이였던 것이다.</p>  
<p>"음..."</p>  
<p>눈을 감고 고민하던 진우가 일단 써보기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목걸이를 목에 가져다 댔다.</p>  
<p>그러자 메시지가 떠올랐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['아이템: 파수꾼의 목걸이'를 착용하시겠습니까?]</p>  
<p>잠시 또 고민해 보던 진우가 마지못해 대답했다.</p>  
<p>"...그래."</p>  
<p>그러자 목걸이가 스르르 사라졌다.</p>  
<p>['아이템: 파수꾼의 목걸이'를 착용하였습니다.]</p>  
<p>"어?"</p>  
<p>진우는 급히 스탯창을 불러왔다.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60 체력: 39 민첩: 80 지능: 37 감각: 67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0)</p>  
<p>물리 데미지 감소: 20%</p>  
<p>"맙소사!"</p>  
<p>정말로 민첩과 감각이 각각 20씩 올라가 있었다.</p>  
<p>옵션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.</p>  
<p>아이템을 착용해도 굳이 드러내고 다닐 필요는 없는 모양이었다.</p>  
<p>개 목걸이를 하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다.</p>  
<p>'다음은 어금니.'</p>  
<p>진우는 상점을 불러왔다.</p>  
<p>잡템 켈베로스의 어금니를 판매로 넘겼더니 개당 15만씩이나 쳐 주었다.</p>  
<p>획득한 어금니는 세 개.</p>  
<p>도합 45만 골드가 손에 들어왔다.</p>  
<p>[보유한 금액: 562,362골드]</p>  
<p>'무슨 잡템이 이렇게 비싸?'</p>  
<p>던전의 난이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좋은 척도였다.</p>  
<p>그만큼 악마성의 난이도가 높다는 뜻이다.</p>  
<p>하지만 나쁜 소식은 아니었다.</p>  
<p>몬스터 딱 한 마리를 잡았는데 합정역 인던에서 하루 종일 노가다했던 돈의 네 배 이상을 벌었다.</p>  
<p>이 추세로 골드를 모은다면 상점에서 파는 억대의 아이템을 사는 일도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었다.</p>  
<p>'여기를 클리어할 수 있다면 말이지...'</p>  
<p>진우는 불타는 탑을 올려다보았다.</p>  
<p>화르르륵!</p>  
<p>위쪽은 아예 뿌연 안개 같은 것에 가려져 있었다.</p>  
<p>안에 뭐가 있는지는 들어가 봐야만 알 수 있을 듯했다.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.</p>  
<p>'아직은 때가 아니다.'</p>  
<p>칭호 버프에 퀘스트 보상이라는 꼼수를 쓰고서도 간신히 입구를 지키는 보초 하나를 잡는 데 그친 곳이다.</p>  
<p>문 너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예상할 수 없었다.</p>  
<p>지금은 물러서야 할 때였다.</p>  
<p>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.</p>  
<p>설명처럼 '악마성의 열쇠'는 원하던 물건이 맞았다.</p>  
<p>축복받은 상자는 틀리지 않았다.</p>  
<p>렙업과 아이템, 그리고 골드까지.</p>  
<p>이곳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.</p>  
<p>적절한 때가 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으리라.</p>  
<p>다만 오늘이 아닐 뿐.</p>  
<p>아쉽지만 손에 쥐고 있던 잿빛 열쇠를 창고에 넣었다.</p>  
<p>'돌아온다.'</p>  
<p>조만간 반드시.</p>  
<p>진우는 웃으며 돌아섰다.</p>  
<p>3. 우연</p>  
<p>며칠이 조용히 흘러간다.</p>  
<p>유진호는 하루에 한 번꼴로 전화해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. 마지막으로 본 다음 날부터 정확하게 세 통의 전화가 왔었다.</p>  
<p>-형님! 접니다, 유진호.</p>  
<p>"용건만."</p>  
<p>-네 형님.</p>  
<p>사람은 순조롭게 모이고 있는 모양이었다.</p>  
<p>곧 팀원이 다 갖춰진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연거푸 반복했다.</p>  
<p>'내가 빠지는 게 어지간히도 겁나나 보네.'</p>  
<p>하지만 팀원들이 다 모일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.</p>  
<p>그래서 진우는 오늘도 헌터 사이트에 들어갔다.</p>  
<p>그동안 계속 개인 공격대를 알아봤지만 역시 E급 헌터를 받아 주는 팀은 없었다.</p>  
<p>첫날은 운이 좋았던 거였다.</p>  
<p>비록 황동석에게 꿍꿍이가 있었다고는 해도 어쨌거나 개인 공격대에 들어가 보기는 했으니 말이다.</p>  
<p>'덕분에 돈도 벌고 레벨도 올리고 새로운 스킬까지 얻었지.'</p>  
<p>이거 황동석한테 감사라도 해야 하는 건가?</p>  
<p>진우는 실소를 흘렸다.</p>  
<p>아닌 게 아니라 지금은 도마뱀 같은 얌체 헌터들이라도 만나고 싶은 심정이었다.</p>  
<p>개인 공대는 안 구해지고, 협회의 협조 요청은 없고, 인던 열쇠도 나오지 않고.</p>  
<p>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.</p>  
<p>꼬르륵.</p>  
<p>'벌써 밥때가 됐나?'</p>  
<p>구인 게시판을 들락거리던 진우가 허기를 느끼고 부엌으로 갔다.</p>  
<p>덜컹.</p>  
<p>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안이 휑했다.</p>  
<p>'...'</p>  
<p>요새 여러 가지 일로 정신이 없어서 장보기를 며칠째 미루고 있었더니 그만.</p>  
<p>오늘은 장이나 보러 갈까?</p>  
<p>진우는 하품하며 냉장고 문을 닫았다.</p>  
<p>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몇 안 되는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대형 마트에서 멀지 않다는 점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편한 복장으로 집을 나섰다.</p>  
<p>걸어서 10분.</p>  
<p>금방 도착했다.</p>  
<p>마트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정경이 한눈에 들어왔다.</p>  
<p>세일 기간이 아닌지 마트 안은 생각했던 것보다 한적해 보였다.</p>  
<p>바구니 하나를 챙겨 들고 천천히 걸었다.</p>  
<p>어머니께서 입원하신 뒤론 줄곧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진우였기에 장보기를 비롯한 집안일에는 비교적 익숙한 편이었다.</p>  
<p>'오늘은 딱히 살 만한 것들이 없네.'</p>  
<p>저녁을 뭐로 할지 고민하며 진열된 상품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때였다.</p>  
<p>"자네, 이제 몸은 좀 괜찮은감?"</p>  
<p>친근한 목소리에 진우가 뒤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'누구지?'</p>  
<p>높은 감각 스탯의 힘으로 근처에 헌터가 한 명 있다는 사실쯤은 진즉에 알았다.</p>  
<p>하지만 여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고, 헌터도 장은 보러 다닐 테니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.</p>  
<p>그런데 그 헌터가 말을 걸어올지는 몰랐다.</p>  
<p>심지어 아는 헌터일 줄은 더더욱.</p>  
<p>"송 씨 아저씨?"</p>  
<p>진우가 반가운 얼굴을 했다.</p>  
<p>송 씨 아저씨, 송치열은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.</p>  
<p>"자네가 무사하다는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, 이렇게 직접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는구먼."</p>  
<p>송치열이 감격스런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진우는 송치열의 뜨거운 눈빛이 쑥스러운지 검지로 관자놀이 주변을 긁적였다.</p>  
<p>송치열은 말을 이었다.</p>  
<p>"내가 진작 성 씨를 찾아갔어야 했는데, 협회 놈들이 무슨 생각인지 입을 다무는 바람에 성 씨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었구먼. 주희 양도 성 씨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는감?"</p>  
<p>"주희 씨가요?"</p>  
<p>"그려. 헌터 일을 그만둔다고 했으면서도 지난주에 자네를 만나러 레이드 장소까지 왔었구먼."</p>  
<p>"지난주라면...?"</p>  
<p>송 씨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공교롭게도 황동석의 팀에 들어갔던 날 협회의 레이드가 있었던 모양이었다.</p>  
<p>'그래서 요 며칠 협회가 조용했던 거군.'</p>  
<p>협회의 연락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, 연락이 왔을 때 받지 못한 것이었다. 작은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.</p>  
<p>송치열은 여전히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진우의 여기저기를 살폈다.</p>  
<p>'그런데 성 씨가 원래 이렇게 컸던감? 지금은 다리도 성치 않을 터인디.'</p>  
<p>송치열의 시선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.</p>  
<p>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자네... 다리가?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